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1시15분	교육관 5번 교실
청년 기도모임	월 1회	교육관 7번 교실
말씀 나눔 모임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성경 읽기 모임	매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구역 모임	월 1회(구역 별)	구역 별 결정

주일 예배 봉사위원

	05. 12	05. 19	05. 26
대표 기도	황희순 집사	문정현 집사	유미경 집사
성경 봉독	황희순 집사	문정현 집사	유미경 집사
헌금 위원	문정현 집사	유미경 집사	김효종 집사
안내 위원	황희순 집사	황희순 집사	황희순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세요(레1~22장)
2. 어린이 주일 - 주일학교 아이들이 건강한 성도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3. 여전도회 월례회 - 다음 주일(12일)에 월례회로 모입니다.
4. 샤론 구역예배 - 8일(11시30분) 이순례 권사택에서 모입니다.
5. 라마단 (5월 6일부터 6월 4일) - 모슬렘인들을 위해 기도해주시요.
6. 나눔의 시간 - 유미영, 김효종 집사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부 활 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화목하는 교회
3. 기도모임이 살아나고, 각 기관,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4. 김선택, 장보경 협력선교사(성진, 예린, 주 히트번, 헝가리) 사역을 위하여
5. 투병 중인 성도의 치유를 위해 - 김복자 권사, 이 현 형제의 치유를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삼하7:21~29)”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민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예배 Gottesdienst 어린이주일

- *송 영 Chor 한민 성가대
- *기 원 Altargebet 김영희 시무권사
- *찬 송 Gemeindelied 560장 다같이
- *성서교독 Wechsellesung 교독문 96번 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563장 다같이
- 기 도 Gebet 정용현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창 22 : 6- 12(구 p28) 박주은 형제
(1. Moses 22:6-12)
- *찬 양 Lobelied 한민 성가대
- 설 교 Predigt 믿음의 모범을 보이세요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568장 다같이
- 성찬예식 Abendmahl 마26:26~30, 228(2,4절) 담임목사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314장(1, 2절)..... 문정현 집사
- 특별찬송 Sondersingen 주일학교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폐회찬송 Schlusslied 54장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한민 성가대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 친교실

연약함 위에 머무는 하나님의 영광

저는 22살에 런던에 있는 Enfield Evangelical Free Church의 담임목회자로 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목회 사역의 책임이 압도해 옴을 느끼던 저는 현명한 친구들과 mentor들의 충고를 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학교에서 저를 지도하신 한 분의 선생님께서로부터 받은 편지에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다음 두 줄이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만일 자네가 그 임무를 맡는다면, 자네는 자네의 힘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네가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면들에서 하나님을 입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네’

연약함을 느낄 때는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아는 때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약함은 우려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연약함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의미심장한 기회들 중 하나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안전지대 밖으로 인도하심으로 당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당신 위에 머물게 되는 것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성경 이야기 / Colin Smith 목사
(미국 오차드 복음자유교회 담임)

* 경건한 삶은 언제나 기독교를 알리는 최고의 방법이다.

- Jeffrey B. Wilson -